



# 매화 옛 등걸에 와

| 매화 와



## 핵심 정리



## 작품 분석

가

오래된 매화(늙어버린 화자의 모습)

매화 옛 등걸에 봄철이 돌아오니  
꽃 또는 화자(중의적 표현) 꽃이 필 수 있는 계절적 배경(자연의 순환)

예 피던 가지에 펑죽도 하다마는

예전에 피던 가지(화자의 과거) 피기로 바라는 화자의 기대감

춘설(春雪)이 난분분(亂紛紛)하니 필동 말동 하여라.  
봄눈 OR 장애물(중의적) 여기저기 흘날리니(시적 상황) 화자의 안타까움과 불안감 표현

▶ 초장: 매화 등걸이 봄이 찾아옴.

▶ 중장: 꽃이 피기를 기대함.

▶ 종장: 꽃이 피지 못하는 안타까움.

## 작품 개관

- **갈래:** 평시조
- **성격:** 감상적, 애상적, 영탄적
- **주제:** 꽃을 피우지 못하는 매화에 대한 안타까움
- **특징:** 중의법 사용, 봄과 춘설의 대조, 계절적 상황에서 화자의 기대와 정서가 드러남.

매화나무 늙은 등걸에 봄철이 돌아오니  
옛날 피던 가지에 꽃이 필만하기도 한데  
봄눈이 흘날리니 필까말까 하는구나.

## 이 해 감 상

(가)

이 작품은 기생인 매화가 자신이 모셨던 평안 감사가 춘설(春雪)이라는 젊은 기생을 가까이 하자 이를 원망하여 지었다고 한다. 그렇게 보면 이 작품은 나이가 들어 자신이 총애를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에 대한 한탄의 정서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초장에서는 중의적 표현을 통해 계절의 순환적 질서 속에서 생성의 계절인 봄이 왔음을 표현하고 있다.

중장에서는 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화자의 정서를 옛 가지를 통해 드러내고 있고,

종장에서 '춘설'이라는 장애물로 인해 꽃이 피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다.

나

녹양이 천만사인들 가는 춘풍 잡아매며  
베드나무 수만가지라도(과장법) 자연의 설리(질서) 설의적 의미가 있음  
탐화봉접인들 지는 꽃을 어이하리  
꽃에 있는 벌과 나비 자연의 설리(질서) 설의적, 체념적 어조  
아무리 사랑이 중한들 가는 임을 잡으랴  
반드시 3음절 화자의 사랑에 대한 인식 이별의 대상 설의법  
지켜야 함.

▶ 초장: 자연의 질서에 대한 순응

▶ 중장: 자연의 소멸에 대한 순응

▶ 종장: 뜻대로 할 수 없는 사랑(체념)

## 작품 개관

- **갈래:** 평시조
- **성격:** 체념적, 성찰적
- **주제:** 사랑하는 이와 피할 수 없는 이별과 체념
- **특징:** 자연의 순리와 인간사를 대응. 설의법, 대구법, 과장법, 비유적 상징 표현 사용.

푸른 베드나무 천만 가지라도 가는 봄바람 잡아매며  
꽃을 찾는 벌과 나비라도 지는 꽃을 어찌하리  
아무리 사랑이 중한들 떠나는 임을 잡으랴.

## 이 해 감 상

(나)

조선 시대 문인이었던 작가가 자연의 질서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음을 빗대어 임과의 이별을 막을 수 없다는 체념과 순응의 정서를 표현한 작품이다. 여기서 '임'은 연인일 수도 있고 임금일 수도 있다. 대구법과 설의법의 사용, 인간사와 자연사의 대응, 과장과 비유적 상징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

사랑 사랑 고고히 맷힌 사랑 온 바다를 두루 덮는 그물같이 맷힌 사랑  
AABA 구조(운율 형성), 시어 반복(강조)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직유법 사용  
왕십리 닥십리라 참외 넝쿨 수박 넝쿨 얹어지고 틀어져서 골골이 뻣어가는 사랑  
길게 이어지는 사랑의 속성  
아마도 이 임의 사랑은 끝 간 데를 몰라 하노라  
반드시 3음절 임의 사랑은 그칠 줄 모르고 영원하다(예찬+영탄법)  
지켜야 함.

▶ 초장: 사랑의 속성(넓고 포용적)  
▶ 종장: 사랑의 속성(길게 이어짐)  
▶ 종장: 영원한 임의 사랑

## 이 해 감 상

(다)

비교적 형식의 제약이 덜한 사설 시조로 임의 지극한 사랑에 대해 예찬적 태도를 보인 작품이다. 임의 사랑을 다양한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추상적 의미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AABA구조와 직유법 사용, 시어의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 유사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강화하고 있다.



## 작품 개관

- **갈래:** 사설 시조
- **성격:** 예찬적, 과장적
- **주제:** 임의 지극한 사랑에 대한 예찬
- **특징:** 시어 반복과 비유적 표현 사용,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과장과 영탄, 유사한 구절의 반복 사용

사랑 사랑 고고하게 맷힌 사랑 바다를 두루 덮는 그 물처럼 넓고 포용적인 사랑  
왕십리 닥십리라 참외 넝쿨 수박 넝쿨 얹어지고 틀어져서 길게 뻣어가는 사랑  
아마도 이 임의 사랑은 끝 간 데를 몰라 하노라.